

학교는 진로개발 격차를 줄일 수 있는가?

이영선 · 이가영 · 김정현¹⁾ · 이민욱²⁾

요약

본 연구에서는 일반계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라 학생 간 진로개발역량에서 격차가 발생하는지, 학교에서 시행하는 진로교육이 학생의 가정 배경의 영향력을 줄일 수 있는지 검증하고자 수행되었다. 이를 위하여 한국교육고용패널(KEEP)Ⅱ 자료를 활용하였으며, 학교 고정효과(school fixed effect)를 적용한 최소자승회귀모형으로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 중에서 부모 학력이 고등학생의 진로개발역량과 정적인 관계를 보였고, 가구소득의 영향력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다음으로 부모 학력이 고등학생의 진로개발역량에 미치는 영향력은 진로 교과 수업에 참여한 학생들에게서 더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학생의 학교 진로 교육 만족도가 높을 때 부모 학력의 영향이 줄어들었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고등학생의 진로 개발이 형평성 있게 이루어지는데 학교 진로교육이 기여할 가능성을 논하였으며 관련 정책과 후속 연구를 제안하였다.

I. 서론

부모의 경제력에 따라 자녀의 학업성취, 대학 진학에서 발생하는 계층 간 교육 격차는 오래 전부터 우리 사회의 문제로 지적되어왔다. 부모의 계층은 자녀의 소득, 학력을 넘어 직업 획득에도 영향을 미치는데(이경희, 민인식, 2016), 고학력, 전문직 부모의 자녀가 전문직에 종사할 확률은 최근 세대에서 더 높게 나타나 학력 및 직업 지위의 대물림 심화를 우려케 한다(여유진 외, 2015). 이에 반해 빈곤 가정 청소년은 진로 탐색 및 준비 과정에서 물질적·정서적 지원의 부족으로 결핍과 박탈감을 겪고 있으며(김수정, 차영화, 최셋별, 2020; 정하은, 2019), 불우한 가정환경 때문에 결국 장래 희망을 포기하기에 이른다(이영광, 김민수, 김민주, 2014). 이처럼 부모의 지원 없이 꿈을 이루기 어렵다는 사회 전반의 인식은 진로를 계획하고 준비하는 청소년에게 무력감을 안겨주고 있다.

청소년 시기 진로발달에 가정 배경에 따른 격차가 우려되는 가운데 본 연구는 그동안 학업 성취도에 주목했던 교육 결과의 격차에 관한 연구(박주호, 백종면, 2019)가 진로교육으로 확장되어야 한다는 필요에서 착안되었다. 2009 개정 교육과정이 도입되고 2013년 시작된 자유학기

1)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연구조원

2) 교신저자,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연구위원(wook0623@krivet.re.kr)

제가 2016년부터 전면 시행되는 등 학교 진로교육은 꾸준히 확대되어 왔다(교육부, 2016; 이지연, 2014). 더불어 자유학기제 초기에는 지역·학교 간 진로교육 투입의 격차가 우려되었으나(장현진, 김민경, 류지영, 윤수린, 유미애, 2015), 2019년 중·고등학교 기준 학교 진로교육의 연간 계획, 예산, 전담 부서 확보 비율이 94%를 상회하여 투입의 격차는 비교적 해소되는 것으로 보인다(한상근 외, 2019). 과거에는 진로교육의 중요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제고하고 진로교육 자료와 인프라를 양적으로 확대하는 것이 중점이었다면(교육부, 2012.1.), 이제는 모든 학생이 학교 진로교육 기회를 충분히 누리고 있는지, 모든 학생이 진로발달 성취수준에 도달하고 있는지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2015년 제정된 「진로교육법」에서는 모든 학생이 스스로 진로를 개척하고 지속적으로 개발해나갈 수 있는 진로개발역량을 갖추는 것을 학교 진로교육의 목표로 지정하였다(교육부, 2015). 이에 진로개발역량은 진로교육의 성과를 확인하는 대표적인 지표이며, 모든 학생의 진로개발은 공교육의 목표 중 하나로 볼 수 있다. 진로개발역량(Career Development Competencies)은 개인이 진로를 합리적으로 선택, 준비하고 관리할 수 있는 역량으로 진로성숙도와 유사한 개념으로 혼용되어 왔으며(김소라, 문승태, 2017) 선행 연구들은 이러한 역량이 성공적인 대학 적응과 학업 및 졸업 후 노동시장 성과까지 예측한다고 보고하고 있다(Crook, Healy & O'Shea, 1984; Liu, Peng & Wong, 2014; Perry, Cabrera & Vogt, 1999). 이처럼 진로개발역량은 학생이 학업을 지속하고 직업을 준비하는데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변인으로 보고되고 있다.

최근 진로교육의 질적 제고, 사각지대 없는 진로교육이 정책 이슈로 등장하였으며(교육부, 2020. 2.), 취약계층 및 읍면·도서지역에 대한 진로 체험 추가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관계부처합동, 2018). 선행 연구는 학교 교육이 가정의 지원이 부족한 학생들도 교육 성취에서 뒤처지지 않도록 지원해주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Greenwald, Hedges & Laine, 1996; Parcel & Dufur, 2001; 박경호, 2018). 그러나 청소년기 진로발달에는 가정의 영향력이 상당하였으며(김소라, 문승태, 2017; 노혁, 2006), 학교 진로교육의 효과는 뚜렷하지 않다는 결과도 제시되었다(남수정, 2011). 또한, 진로교육 정책은 대학 진학 위주의 사회 풍토 속에서 효과적이지 못할 수 있다(이인수, 2017; 이지연, 2014). 학교 진로교육 활동이 가구소득이 높은 학생들에게 더 많이 기회가 배분되거나(백선희, 심우정, 2018), 교육이 상위 계층에게 유리한 결과를 가져온다면(류방란, 김성식, 2006) 학교 진로교육이 학생의 가정 배경의 영향력을 보완하기 어려우며 격차를 심화시킬 수도 있는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학생의 진로개발역량에 미치는 영향력을 확인하고 학교 진로교육이 격차를 줄일 가능성을 탐구하고자 한다. 연구에서 주목한 고등학생은 학교에서 사회로 이행하는(school-to-work) 진로 전환기 즉, 학생들은 진학 또는 취업 결정, 대학 및 전공 선택을 위하여 진로탐색과 진로결정을 해야 하는 시기에 있다(남수정, 2011). 또한, 학교 진로교육의 양적 확대를 넘어 질적 제고가 요구됨에 따라(교육부, 2020. 2.; 이지연, 2014), 학교 진로교육 경험 여부와 함께 질적으로 학생이 만족하는 진로교육 경험을 하였는지

를 함께 고려하였다. 이에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진로교육의 형평성(equity)에 대한 학교 진로교육의 역할과 그 가능성을 탐색하고자 하며, 아래와 같이 연구 문제를 진술하였다.

첫째,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는 고등학생의 진로개발역량에 영향을 미치는가?

둘째,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고등학생의 진로개발역량에 미치는 영향은 학교 진로교육(경험/만족도)에 따라 조절될 수 있는가?

II. 이론적 배경

교육 결과에서 개인 간 차이는 능력, 흥미, 노력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해 발생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차이가 부모의 계층, 거주 지역과 같이 개인의 노력으로 극복하기 어려운 귀속적 요인이나 사회적으로 합의할 수 없는 기준에 기인하고 있을 때, 그리고 이러한 교육적 성취가 취업, 임금 등 사회적 보상과 성공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판단될 때 교육 격차는 사회적 문제가 된다(박경호, 2018). 진로개발의 형평성에 관한 논의의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본 연구는 진로개발역량이 고등학생이 미래에 얻게 될 사회적 보상과 관련이 있는지 개념과 의의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어서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라 학생의 진로 발달에 유의한 차이가 발생하는지, 학교 교육이 이에 어떤 방식으로 관여할 수 있을지에 관하여 살펴본 선행연구를 분석하였다.

1. 진로개발역량

진로개발은 “교육, 직업 및 삶과 관련된 역할을 찾고 선택하고 결정하면서 발생하는 동시다발적인 많은 일들로 구성된 전 생애에 걸친 과정”(NCDA, 2004: 1)으로 진로개발역량은 “개인이 진로 개발을 하는 데 필요한 역량으로서 삶의 지향점을 설정하고, 진로를 선택하고, 그러한 선택이 실제로 구현될 수 있도록 준비하고 노력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지식, 스킬, 태도, 가치와 성향”(임언 외, 2008: 183)을 의미한다.

진로개발역량과 유사한 개념으로는 진로역량과 진로성숙도가 있다³⁾. 고등학생의 높은 진로

3) 진로 역량은 “개인의 삶 전체 맥락에서 진로를 개발하는 데 요구되는 역량으로 개인이 설정한 진로목표에 접근하고 달성해 가는 과정에서 필요한 지식, 능력, 태도, 가치와 성향”을 포괄한다(김봉환, 정철영, 김병석, 2006). 진로개발역량이 학령기 청소년을 대상으로 고려한 개념임을 고려해, 진로역량 중 청소년을 대상으로 할 경우 진로개발역량과 유사한 개념이라고 보았다. 진로성숙도는 “직업 발달 과업을 수행할 수 있는 준비정도”(Savickas, 1984: 1)를 의미한다. 진로성숙은 발달수준을 강조한 개념이었으나, 심리학의 일반적 발달과 진로발달 과정이 차이가 있다는 점과 진로교육에서 정책적 지원의 필요성이 강조되면서, 자기주도적으로 진로를 개척하는 의지를 부각하고자 ‘개발’이라는 용어로 대체되기 시작하였다(임언, 2008). 선행연구는 진로성숙도가 높은 개인은 진로를 합리적으로 선택할 역량을 지니는 것으로 보아 유사 개념으로 간주하여 분석하였다(김소라, 문승태, 2017).

개발역량과 진로성숙도는 학교생활과 학업성취 뿐 아니라 노동시장 성과를 예측할 수 있는 변인으로 보고되고 있다. 고등학생의 진로성숙도는 학업동기(황매향, 임은미, 2004), 학교생활만족도와 학업성취도(조명희, 이해연, 이현우, 2013)에 정적인 관계가 있다고 밝혀졌다. 또한, 직업계고 학생에게 진로성숙도는 학업성취(김장희, 정성수, 2012) 외에도 고졸 취업 이후 직장에서의 직무만족도(라종민, 이기중, 2016)에 유의한 영향을 주고 있었다. 뿐만 아니라 고등학교 재학 시 진로성숙도가 높은 학생들이 대학생활 적응을 잘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김규효, 이은경, 2019).

대학생을 대상으로 진로역량 및 진로성숙이 학업 및 입직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연구로 정은이(2016)는 대학생의 진로 역량이 높을수록 대학 환경에 잘 적응하고 있음을 확인했다. 대학생의 진로성숙은 학점, 교육만족도, 교수와의 관계, 학업 지속에 대한 타인의 격려 정도와 같은 대학생의 학업 지속에 주요 요인들과 정적인 관계를 보이고 있었다(Perry, Cabrera & Vogt, 1999). 나아가 Crook, Healy & O'Shea(1984)는 대학생의 진로성숙도가 대학 학점과 이후의 업무성취를 예측할 수 있음을 밝혔으며, Liu, Peng & Wong(2014) 또한 대학생의 진로성숙이 성공적인 취업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확인했다.

정리하자면, 고등학생의 진로개발역량은 고교 및 대학 학업성취, 대학생활 적응, 고용 가능성과 같은 변인과 관계가 있는 요인으로 학생의 대학 생활 뿐 아니라 미래 직업 지위와 경제적 안정성에도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진로개발역량이 학업, 생활, 진학 또는 취업 후 성과와 연관이 있다면 모든 학생에게 중요한 역량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이에 가정 배경에 의한 역량 차이는 정당하지 않은 발달격차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학생의 진로개발역량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고, 이것이 학생의 학교 진로 교육 경험에 따라 달라지는지 검증하고자 한다.

2.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와 고등학생의 진로개발역량

청소년의 진로역량 수준을 논할 때 고려되는 변인 중 가정 배경변인의 하나인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socioeconomic status: SES)는 진로성숙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인이며(Luzzo, 1993), 외부 환경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청소년 시기에 중요한 외적 변인이다(노혁, 2006). 그러나 이러한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는 자녀가 극복하기 어려운 구조적인 환경이라는 한계가 있으며(임지윤, 2018), 부모의 학력과 소득이 자녀를 양육하는 태도와 자녀의 학습과정에 관여하여 궁극적으로 자녀의 진로성숙에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박창남, 도종수, 2005). 이렇듯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자녀의 진로성숙도와 같은 진로관련 변인에 미치는 영향은 다수의 연구에서 보고되고 있다.

먼저, 부모의 학력과 가구소득 수준이 청소년의 진로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다는 결과를 낸 연구들이 있다(김재희, 2019a; 노혁, 2006; 원지영, 2019; 이은정, 장윤옥, 2008 등). 노혁(2006)은 부 학력과 가구소득 수준이 모두 중학생의 진로성숙에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를 보고했다. 다만 학년이 올라가면서 부 학력의 유의성이 사라져 청소년 시기 내에서도 진로성숙 수준에 영향을 주는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 변인이 달라질 수 있다고 하였다. 또한 이은정, 장윤옥(2008)은 가정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중학생의 진로태도성숙 하위요인 중 확신성에 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를 보고했는데, 이러한 결과를 사회적으로 성공한 부모 아래에서 자란 자녀일수록 본인도 성공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고등학생 대상 연구로 원지영(2019)은 가구소득 상 집단의 학생은 가구소득 중, 하 집단의 학생보다 높은 진로성숙 수준이 대학교 진학 이후까지 지속된다고 하였으며, 최수정(2007)은 부모의 사회경제적 수준이 높을수록 자녀의 진로성숙 성장률이 높다고 하였다. 진성미(2011)의 연구에서는 아버지와 어머니의 학력에 따라 초·중·일반고·전문계고 학생들의 진로성숙도에 차이가 있었으며, 모든 학교급에서 부모의 학력이 높을수록 자녀의 진로성숙도가 높은 경향을 보였다. 또한, 자녀의 진로성숙도와 가구소득 수준의 상관 역시 정적으로 나타났다. 마찬가지로 김재희(2019a)의 연구에서도 가정의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일반계 고등학생의 진로성숙도가 더 높은 경향을 보였다는 결과를 보고하고 있다.

반면, 장현진(2019)의 연구에서는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진로성숙도에 미치는 영향이 유의하지 않았다는 결과를 보고했으며, 마찬가지로 김순미, 이성하, 조선희, 김민순(2020)의 연구에서도 부모의 사회경제적 수준이 진로태도성숙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이 유의하지 않았다. 이 연구는 부모의 사회경제적 수준이 진로지지와 진로동기를 거쳐 진로태도성숙까지 이르는 경로를 검증하여 부모의 사회경제적 수준의 간접효과가 유의함을 밝혔다. 또한 김희자(2008)도 빈곤이 청소년의 진로성숙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은 유의하지 않다는 결과를 보고하고 있다.

소결하면, 부모의 학력과 소득 수준이 높을수록 자녀의 진로발달 수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가 다수 존재하였으나 유의하지 않거나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결과도 보고되었다. 진로개발의 계층 간 형평성 논의는 고등학생의 진로개발이 부모 사회경제적 지위의 영향에 따른 격차가 있음을 전제하기에 이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는 진로개발역량에 영향을 주는 개인, 가정 및 학교의 진로 개발 관련 특성을 통제하고도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미치는 영향력이 유의한지 검증하고자 한다.

3. 진로개발역량 격차와 학교 진로교육의 관계

본 연구는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라 학생의 진로개발역량 수준에 차이가 있는지 확인하고, 학교에서의 진로교육 활동 경험과 만족도에 따라 가정 배경 영향력의 차별적 양상을 검증한다. 이에 부모 및 가정의 영향으로 인한 학생 간 교육 결과(outcomes) 격차에 학교 교육이 어떻게 작용하는지 살펴보고 이를 진로개발(career development) 격차에 적용하여 논의하려 한다.

우선,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낮은 학생에게 공교육은 가정의 결손을 보상(compensate)하는 방향으로 작용할 수 있다(Greenwald, Hedges & Laine, 1996; Parcel & Dufur, 2001). 학

생이 수업에 집중, 참여, 이해하는 수준은 학업성취를 정적으로 예측하고 있으며, 이러한 학교 수업 활동을 통한 학업성취 제고 효과는 하위 계층 학생에게서 더 크게 나타났다(류방란, 김성식, 2006; 박희진, 남궁지영, 2019). 또한, 학교 교사의 역할에 주목한 연구들은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자녀의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영향이 교사의 전문성과 열의, 효능감이 높은 경우에는 줄어든다고 밝혔다(김성민, 황진태, 2011; 류방란, 김성식, 2006; Parcel & Dufur, 2001). 학교에 대한 유대와 안정감, 교사에 대한 신뢰, 학교 구성원의 참여와 같은 학교 풍토 역시 가정 배경과 학업성취 간 관계를 완화하고, 저소득 또는 결손 가정 학생의 낮은 학업성취에 긍정적으로 작용하였다(백병부, 김정숙, 2014; Hopson & Lee, 2011; O'Malley, Voight, Renshaw & Eklund, 2014). 또한, 동일한 교육 정책의 효과는 가구소득 수준이 낮거나 학습 자원이 부족했던 학생들에게서 더 크게 나타날 수 있다(박경호, 2018: 169). 가정 및 지역의 교육 지원이 적었던 학생에게 방과 후 학교, EBS 교육방송 등 정부 지원 교육 프로그램의 학업성취 제고 효과가 더 크게 나타난다는 결과는 이를 뒷받침한다(김성숙, 송미영, 김준형, 이현숙, 2011; 박현정, 길혜지, 2013).

그러나 교육성과에 대한 가정 배경의 영향력은 학교 교육과 비교하여 여전히 상당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Dufur, Pardel & Troutman, 2013). 또한, 가정의 지원과 학교 교육이 상호 촉진할 때 교육의 효과가 배가된다는 연구 결과도 보고되었다. 강유진(2010)은 가구소득이 중학생의 학업성취에 미치는 영향이 교사와의 애착이 큰 학생에게서 더 커진다고 하였으며, 류방란, 김성식(2006)은 비인지적 성취로 학생의 자기존중감에 대한 교사 열의, 학교 풍토의 정적 영향은 상위 계층 학생에게서 더 크게 나타난다고 밝혔다. Parcel & Dufur(2001)의 연구에서도 교사의 돌봄 수준과 부모의 인적자본은 학생의 성취도에 정적으로 상호작용하였다.

요컨대, 학교 교육은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른 학생 간 교육 격차를 좁힐 가능성이 있고, 최근 사회 양극화에 대한 우려로 인해 이와 같은 공교육의 역할이 더욱 기대되고 있다. 그러나 가정의 지원과 학교의 교육이 병행되었을 때 효과가 커진다는 연구 결과를 보면, 학교 교육이 형평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운영된다면 격차가 심화될 여지도 존재한다(류방란, 김성식, 2006). 특히, 학생의 교내 진로교육, 체험 및 동아리 활동 참여가 가구소득과 부모의 학업 관여 수준에 따라 달라진다는 연구는 학교 교육 경험의 기회가 고르게 분배되지 못할 가능성을 우려케 한다(백선희, 심우정, 2018; 심우정, 백선희, 2020; 황진구, 허효주, 2014). 그동안 교육 격차와 학교 교육 간 관계를 주목한 기존 연구들은 주로 인지적 성과인 학업성취를 분석하였고, 교육 활동에 주목하기보다 학교 구성원 간 사회적 관계와 풍토 등 거시적 맥락에서 학교 교육과의 관계를 살펴본 것이 많았다. 본 연구는 학교 교육성과 중 진로개발역량의 형평성에 주목하였으며 학생의 학교 진로교육 활동 경험과 만족도에 초점을 두고 가정 배경이 고등학생의 진로개발에 미치는 영향을 학교 진로교육이 줄일 수 있는지 확인하고자 한다.

Ⅲ. 연구 방법

1. 분석 자료 및 대상

본 연구는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고등학생 자녀의 진로개발역량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학교 진로교육이 이러한 영향력을 어떻게 조절하는지 분석한다. 이를 위하여 한국교육고용패널Ⅱ(Korean Education & Employment PanelⅡ, 이하 KEEPⅡ) 2016년 자료를 활용하였다. 이 자료는 고등학생의 진로개발역량 변인과 학생의 진로개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개인·가정 요인을 함께 조사하였기 때문에 연구 설계에서 혼동 변수(confounding variables)로 인한 편향(bias)을 줄일 수 있다.

연구의 대상은 2016년 일반계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이다. KEEPⅡ은 전국 고등학생을 모집단으로 지역 층화 후 전국 대비 해당 지역 학생 수에 비례하여 학교를 계통 추출하였다.⁴⁾ 이 중 일반고 학생은 5,392명으로, 부모 학력의 영향력을 정확하게 반영하고자 부 또는 모가 아닌 보호자의 학력만 조사된 사례(0.6%)를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그 외 결측값을 포함한 사례를 제거(listwise deletion)하고 최종 분석에 포함한 학생 수는 총 5,065명이다.

2. 주요 변수 설명

연구의 분석에 사용된 변수로 먼저 종속변수인 진로개발역량은 학생이 자신의 진로에 관한 생각과 태도에 관한 14문항의 평균값을 활용하였다. 이는 ‘직업 이해’, ‘진로 탐색’, ‘진로설계 및 준비’의 3개 영역으로 이루어져 있다⁵⁾. 다음으로 독립 변인인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는 부모가 응답한 ‘부모 학력’과 ‘가구소득’을 활용한다. 부모 학력은 부 또는 모의 최종 학력을 교육연한으로 변환하여 높은 값을 활용하였다. 부 또는 모의 응답 중 중 한 값이 결측일 때는 존재하는 값으로 대체하였으며, 부와 모의 학력이 모두 결측인 사례는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가구소득은 월평균 가구소득에 자연로그를 취하여 편포를 조정한 후 활용하였다. 조절변인인 학교 진로교육은 고등학생의 학교 진로교육 경험과 학교 진로교육에 대한 만족도를 활용하여 진로교육의 양적, 질적 측면을 모두 고려하고자 하였다. 학생의 진로교육 경험은 데이터에서 제공하는 진로교육 유형을 진로 교과 수업, 진로 심리 검사, 진로 상담, 진로 동아리, 진로 체험 활동으로 재구성하였고⁶⁾ 학생이 해당 활동을 경험했다면 1, 경험하지 않았다면 0으로 코딩하

4) ‘한국교육고용패널Ⅱ 1차(2016)년도 조사 사용자 지침서(User Guide)’를 참고하여 서술하였다.

5) 본 연구에서 ‘진로개발역량’으로 활용한 KEEPⅡ의 문항은 교육부 진로교육현황조사에서 개발한 진로개발역량 22문항과 비교하여(장현진 외, 2015) ‘자아이해와 사회적 역량 개발’에 해당하는 영역이 빠진 한계가 있다. 그러나 본 연구는 이를 감안 하고도 고등학생은 중학교까지 형성된 자기 이해를 바탕으로 직업 이해, 진로 탐색 및 구체화가 이루어지는 시기임을 고려하여 KEEPⅡ의 문항을 진로개발역량으로 조작적 정의한 선행연구를 참고하였고(김재희, 2019b), 진로개발역량으로 명명하여 전개하였다.

6) KEEPⅡ에서는 학생이 학교에서 수행하는 진로교육 및 활동 경험으로 ‘진로와 직업’ 수업, 진로 관련 창의적 체험활동, 진로 심리검사, 진로 상담, 진로 동아리, 직업인 멘토 특강, 현장 견학, 학과 체험, 현장 직업 체험,

였다. 학교 진로교육 만족도는 학교에서 시행하는 진로교육 전반에 대한 학생 만족도의 5점 척도 문항으로 1점은 ‘전혀 그렇지 않다’, 5점은 ‘매우 그렇다’를 나타낸다⁷⁾.

본 연구는 고등학생의 진로개발역량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특성으로 성별(Choi, Hutchison, Lemberger & Pope, 2012), 거주 지역(Jay, Rojewski & John, 1995), 자기효능감(Creed & Patton, 2003; Lee, Lee, Song & Kim, 2015), 부모의 관여(Park, Rojewski & Lee, 2018, Lee, 2018), 학생의 진로에 관한 교사의 관심(윤민중, 2016; Metheny, McWhirter & O’Neil, 2008), 학생의 수업 태도(김동심, 윤혜준, 2020)를 통제변수로 모형에 투입하였다. 부모의 관여는 부모와 학교생활, 흥미·적성, 미래 직업, 학교 및 학과 선택, 삶의 가치관에 관하여 대화하는 빈도이며, 학생이 응답한 값이다. ‘전혀 하지 않음’, ‘월 1회 정도’, ‘주 1~2회 정도’, ‘주 3~4회 정도’, ‘거의 매일’ 중 선택하여 응답하였으며 본 연구에서는 선행 연구를 참고하여 5점 척도로 활용하였다(김소라, 문승태, 2017). 학생의 수업 태도는 수업 시간 집중, 활발한 질문, 숙제 수행, 연습 및 복습을 수행하는 정도를 학생이 평가하여 5점 척도로 측정된 문항을 활용하였고, 값이 클수록 수업에 임하는 태도가 매우 좋음을 의미한다. 이하 변수의 구성과 설명을 아래 <표 1>과 같이 제시한다.

<표 1> 변수의 구성 및 설명

변수명		변수 설명
종속 변인	진로개발역량	진로에 관한 학생의 생각과 태도 관련 14문항 평균
독립 변인	부모 학력 연한	부 또는 모의 최종 학력 교육 연한 중 더 높은 값 초졸(6), 중졸(9), 고졸(12), 초대졸(14), 대졸(16), 석사졸(18), 박사졸(21)
	가구소득	월평균 가구소득에 자연로그를 취한 값
조절 변인	학교 진로교육 경험	학교에서의 진로 교과 수업, 진로 심리검사, 진로 상담, 진로 동아리, 진로 체험활동 경험: 경험(=1), 미경험(=0)
	학교 진로교육 만족도	학교 진로교육 전반에 대한 학생의 만족도 문항 (5점 척도)
학생 특성	성별	여학생(=1), 남학생(=0)
	자기효능감	자기효능감 관련 6문항 평균 (5점 척도)
	부모의 관여	학교 생활, 흥미, 적성, 진학, 가치관, 직업 등에 관하여 부모와 대화 빈도 5문항 평균 (5점 척도)
	교사의 진로 관심	학생의 진로·적성에 관심갖는 교사 있음 (5점 척도)
	학생의 수업 태도	학생의 수업 태도에 관한 5문항 평균 (5점 척도)
	학생 거주 지역	대도시, 시 지역, 읍면 지역 더미 코딩 (참조: 읍면지역)

모의 직업 체험, 진로 캠프, 11개의 진로교육 활동으로 구분하여 조사하고 있다. 이 중 ‘진로와 직업 교과 수업’과 ‘창의적 체험활동 중 진로 활동’은 정규 수업 시간에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활동의 형태가 유사하며 응답자가 명확하게 구분하기에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하였고(장현진 외, 2015) 두 활동 중 하나를 경험한 경우 ‘진로 교과 수업’에 참여한 것으로 코딩하였다. 진로 체험활동은 학생이 직업인 멘토 특강, 현장 견학, 학과 체험, 현장 직업 체험, 직업 실무 체험, 진로 캠프 6가지 진로 체험 중 하나 이상의 활동을 경험해보았다면 경험한 것으로 처리하였다.

7) 이는 학생이 참여한 학교 진로교육 활동에 대하여 활동 별로 조사한 만족도와는 다른 문항으로, 다중공선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음을 확인하였다.

3. 분석 방법

연구의 분석은 학교 고정효과(school fixed effect)를 투입한 최소자승회귀모형(Ordinary Least Square Model)으로 진행하며, 아래 <식 1>과 같다.

$$y_i = \beta_0 + \beta_1 SES_i + \beta_2 CONTROLS + S_i + \epsilon_i \quad \text{<식 1>}$$

위 식에서 y_i 은 종속변수인 진로개발역량을 의미하며, 우변의 SES_i 는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인 부모 학력과 가구소득이다. 학교 진로교육 활동에 대한 학생의 참여와 만족도는 진로교육을 시행하는 학교의 특성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 또한,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는 가정 내에서의 영향력 외에도 선별적인 학교 선택으로 이어져 영향을 줄 수 있다(Musset, 2012: 32). 따라서 본 연구는 선택적인 고교 진학으로 인한 영향을 배제하고자 일반계 고등학교만을 분석에 활용하였으며, 일반계고 간에도 관측되지 않은 학교 특성의 영향력을 배제하고자 최소자승가변수 추정(Least Square Dummy Variable: LSDV) 방식으로 개별 학교 더미(S_i)을 모형에 투입하여 분석하였다(Cyrenne & Chan, 2012). 부모 사회경제적 지위가 고등학생의 진로개발역량에 미치는 영향은 β_1 의 유의성으로 확인한다.

연구문제 2에서는 부모 사회경제적 지위가 진로개발역량에 미치는 영향력이 학교 진로교육의 참여와 만족도에 따라 크거나 작아질 수 있는지 조절효과에 관심을 두고 있다. 따라서 아래 <식 2>와 같이 학교 진로교육 경험 여부 및 만족도와 부모 사회경제적 지위 간 상호작용항을 투입하여 분석을 수행하였다.

$$y_i = \beta_0 + \beta_1 SES_i + \beta_2 CONTROLS + \beta_3 (SES_i \times CAR_i) + S_i + \epsilon_i \quad \text{<식 2>}$$

학교 진로교육의 참여와 만족도가 부모의 경제력으로 인한 진로교육 격차를 조절할 수 있는지는 상호작용항 β_3 의 유의성으로 추론할 수 있다(류방란, 김성식, 2006). 연구의 모든 분석은 STATA 13.0으로 수행하였고, 강건표준오차(robust standard error)를 도출하였다.

IV. 연구 결과

1. 기술통계

분석에 앞서 활용한 자료를 기준으로 2016년 한국 고등학생의 부모 사회경제적 지위 현황을 아래 <표 2>와 같이 제시하였다. 먼저, 부모의 높은 학력이 대학 졸업인 사례가 1,899(37.43%)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와 비슷하게 고졸 이하인 사례도 1,725(34.00%)명으로 나타났고, 2·3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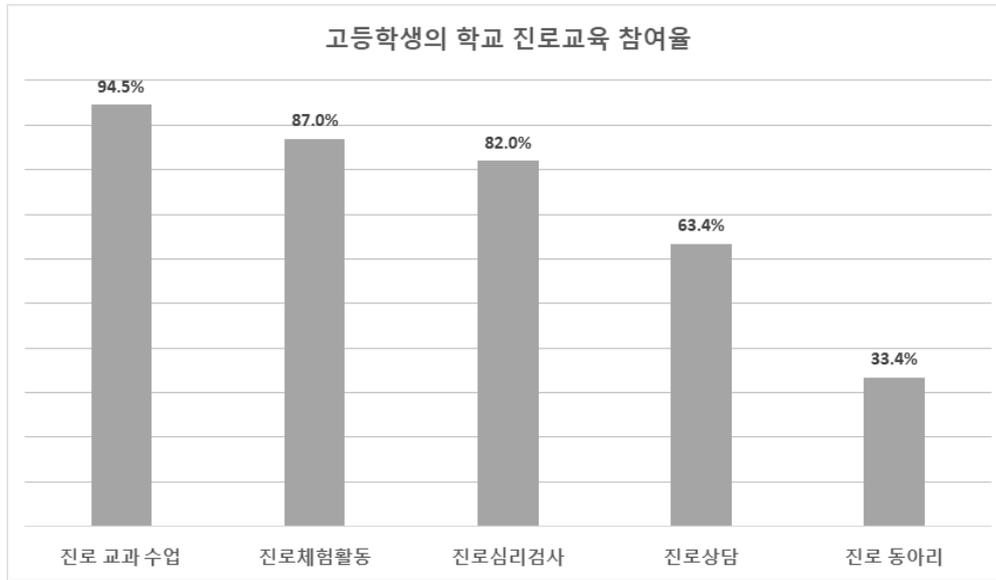
제 전문대학을 졸업한 사례는 16.81%, 석·박사로 대학원을 재학 또는 졸업한 비율은 11.77%였다.

가구소득은 부모가 응답한 금액을 250만 원씩 구간별로 구분하여 살펴보고, 월평균 소득을 250만 원 이상 500만 원 미만으로 응답한 사례가 1,821가구로 가장 많은 35.89%를 차지하였다. 월 소득이 500만 원 이상 750만원 미만인 사례는 1,803가구로 35.53%였다. 일반계 고등학생 중 약 9%의 가구는 월 소득을 1000만 원 이상으로 보고하였으며, 약 10%의 가구는 월 250만 원 미만의 소득으로 생활하고 있다.

〈표 2〉 고등학생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 현황

		빈도(명)	비율(%)	누적 비율(%)
부모 학력	고졸 이하	1,725	34.00	34.00
	전문대 졸업	853	16.81	50.81
	대학 졸업	1,899	37.43	88.23
	대학원 재학·졸업	597	11.77	100
월평균 가구소득	0 ~ 250만원 미만	507	9.99	9.99
	250만원 이상 500만원 미만	1,821	35.89	45.88
	500만원 이상 750만원 미만	1,803	35.53	81.42
	750만원 이상 1000만원 미만	491	9.68	91.09
	1000만원 이상	452	8.91	100
계		5,074	100	100

다음으로, 고등학생의 학교 진로교육 참여 현황을 [그림 1]을 통해 살펴보았다. ‘진로와 직업’ 수업을 경험한 학생은 94.5%로 여러 형태의 학교 진로교육 중 학생들이 참여한 비율이 가장 높았다. 이어서 87%의 학생이 다양한 유형의 진로 체험활동에 하나 이상 참여해 본 적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진로 심리검사를 받아 본 학생은 82%였고, 진로 상담은 63.4%로 비교적 학생의 참여 비율이 낮은 편에 속하였다. ‘진로 관련 창의적 체험활동’에는 79.3%의 고등학생이 참여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33.4%의 학생이 진로 동아리 활동을 경험한 적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그림 1] 고등학생의 학교 진로교육 유형별 참여 비율

이어서,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라 고등학생 자녀의 진로개발역량이 차이가 보이는지 회귀분석 전 평균 비교를 통해 개괄적으로 살펴보았다. 아래 <표 3>에서는 부모 학력이 높을 수록 자녀의 진로개발역량의 평균값이 점진적으로 상승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표 3>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른 고등학생의 진로개발역량

		진로개발역량		
		N	Mean	SD
부모 학력	고졸 이하	1,725	3.419	0.615
	전문대 졸업	853	3.483	0.572
	대학 졸업	1,899	3.537	0.600
	대학원 재학·졸업	597	3.694	0.584
월평균 가구소득	0 ~ 250만원 미만	507	3.408	0.630
	250만원 이상 500만원 미만	1,821	3.466	0.595
	500만원 이상 750만원 미만	1,803	3.535	0.590
	750만원 이상 1000만원 미만	491	3.576	0.612
	1000만원 이상	452	3.591	0.639
계			5,074	

고졸 이하 부모의 고등학생 자녀는 진로개발역량이 5점 기준 평균 3.419였으나 석·박사 부모의 자녀는 평균 3.694로 나타났다. 가구소득과의 관계도 같은 방향으로 나타났는데, 월 소득 250만 원 미만인 가구의 자녀는 진로개발역량 평균값이 3.408이나, 월 소득 1000만 원 이상인

가구의 자녀는 진로개발역량 평균값이 3.591로 보고되고 있다. 이러한 기술통계 결과는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라 고등학생의 진로개발역량에서 차이가 있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이러한 격차가 학생의 개인 특성 또는 부모·교사의 관여가 아니라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에서 기인하는지 엄밀하게 확인하기 위해서는 진로개발역량의 유관 변인을 통제한 회귀분석이 요구된다. 전술한 주요 관심 변인을 포함하여 회귀분석에서 활용한 변수들의 기술통계는 아래 <표 4>와 같이 제시하였다.

<표 4> 기술통계

구분	변수명	Mean	SD	min	Max	
종속 변수	진로개발역량	3.506	0.605	1.000	5.000	
독립 변수	부모 학력 연한	14.563	2.466	0.000	21.000	
	가구소득(만원)	552.563	366.581	30.000	8000.000	
	가구소득(자연로그)	6.162	0.557	3.405	8.987	
관심 변수	학교 진로교육 만족도	3.144	0.922	1.000	5.000	
	진로 교육 경험	진로 교과 수업	0.945	0.228	0.000	1.000
		진로 심리검사	0.820	0.384	0.000	1.000
		진로 상담	0.634	0.482	0.000	1.000
		진로 동아리	0.334	0.472	0.000	1.000
		진로 체험활동	0.870	0.336	0.000	1.000
통제 변수	성별(여학생=1)	0.535	0.499	0.000	1.000	
	자기효능감	3.670	0.646	1.000	5.000	
	부모의 관여	2.974	0.916	1.000	5.000	
	교사의 진로 관심	3.689	0.888	1.000	5.000	
	학생의 수업 태도	3.090	0.707	1.000	5.000	
	학생 대도시 거주	0.414	0.493	0.000	1.000	
	시 지역 거주	0.399	0.490	0.000	1.000	
	읍면 지역 거주	0.187	0.390	0.000	1.000	
N		5,074				

2.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고등학생의 진로개발역량에 미치는 영향

첫 번째 연구 문제인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고등학생의 진로개발역량에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학교 고정효과(school fixed effect)를 최소자승더미변수(LSDV)로 투입한

회귀분석(Ordinary Least Square Regression)을 수행하였고, <표 5>와 같이 제시하였다.

최소자승회귀분석 결과인 (1)을 먼저 살펴보면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SES) 중에서 부모 학력이 높을 때 학생의 진로개발역량은 0.013만큼 증가하며, 이는 유의수준 0.0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부모 학력 연한은 학교고정효과를 투입하여 학교 간 이질적 차이를 통제한 (2)에서도 정적으로 유의한 것($\beta=0.011$)으로 나타났다. 즉, 학생들이 동일한 조건의 학교 교육을 받는다고 가정하더라도 부모의 학력이 높은 학생이 진로개발역량이 더 높아 부모 학력으로 인하여 학생 간 진로개발역량의 차이가 발생하는 것을 추론할 수 있다. 한편, 독립변수 중 가구 소득은 (1)과 (2)에서 모두 유의하지 않았다.

<표 5>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고등학생의 진로개발역량에 미치는 영향

		(1)		(2)		
		β	SE	β	SE	
독립 변수	부모 학력 연한	0.013***	0.003	0.011***	0.003	
	가구소득	0.003	0.012	-0.007	0.012	
관심 변수	학교 진로교육 만족도	0.020**	0.032	0.017**	0.032	
	진 로 교 육 경 험	진로 교과 수업	0.047	0.018	0.042	0.019
		진로 심리검사	0.069***	0.014	0.070***	0.014
		진로 상담	0.027*	0.014	0.022	0.015
		진로 동아리	0.028**	0.021	0.036**	0.023
		진로 체험활동	0.077***	0.008	0.072***	0.009
통제 변수	성별(여학생=1)	0.098***	0.013	0.108***	0.018	
	자기효능감	0.444***	0.012	0.440***	0.013	
	부모의 관여	0.060***	0.008	0.063***	0.008	
	교사의 진로 관심	0.066***	0.009	0.068***	0.009	
	학생의 수업 태도	0.144***	0.012	0.140***	0.012	
	학생 대도시 거주	0.011	0.018	0.003	0.042	
	시 지역 거주 (참조: 읍면)	-0.000	0.018	-0.030	0.030	
school-fixed effect		-		yes		
cons		0.484***	0.088	0.494***	0.139	
R2		0.434		0.472		
N		5,074				

- Standard errors are in parentheses. *** p<0.01, ** p<0.05, * p<0.1

모형 (2)에서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와 부모, 교사의 교육적 지원, 학생의 개인 특성이 동일하다고 가정하였을 때, 학생이 학교의 진로교육에 참여하고 만족도가 높을 때 진로개발역량 역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학교 진로교육 만족도의 계수 값이 0.017으로 유의하였다. 진로 심리검사, 진로 동아리, 진로 체험활동 경험이 고등학생의 진로개발역량과 정적인 관계가 있었다. 진로 교과 수업, 진로 상담은 최종 모형인 (2)에서는 유의하지 않았다. 통제변수 중에서는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진로개발역량이 높았으며, 자기효능감이 높고 부모의 관여가 활발할 때, 교사가 학생의 적성과 진로에 관심을 가질수록, 학생의 수업 태도가 좋을 때 고등학생의 진로개발역량도 높은 것을 확인하였다.

3. 부모 학력이 진로개발역량에 미치는 영향과 학교 진로교육의 조절효과

연구 문제 2로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고등학생의 진로개발역량에 미치는 영향력이 학교 진로교육을 통해 달라질 수 있는지 확인하였다. 앞서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진로개발역량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가구소득은 유의하지 않았고 부모 학력 연한은 정적으로 유의하였다. 이에 본 연구는 부모 학력 연한을 주요 변수로 학교 진로교육과의 상호작용 분석을 수행하였다. 학교 진로교육을 나타내는 지표로 (가) 고등학생의 학교 진로교육 유형별 경험 여부와 (나) 고등학교 진로교육 전반에 대한 만족도를 활용하였고 각각 살펴보았다. 통제변수는 <표 5>와 동일하게 모형에 투입하였으며 지면 관계로 생략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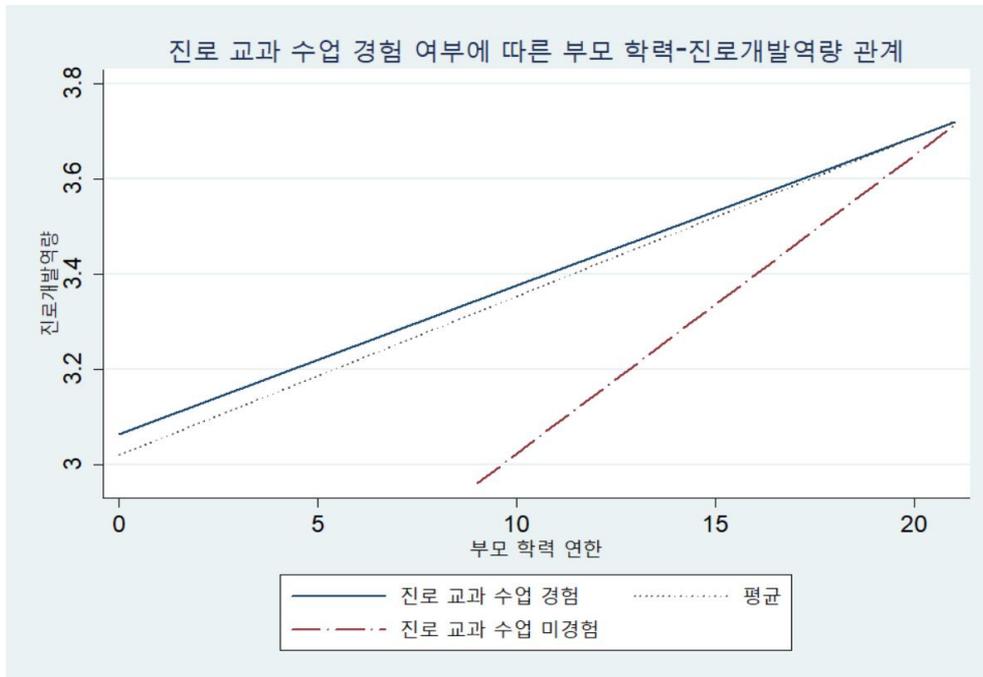
가. 학교 진로교육 경험의 조절효과

먼저, 부모 학력이 고등학생의 진로개발역량에 미치는 영향이 학생의 학교 진로교육 경험 여부에 따라 달라지는지 살펴보았다. 최소자승회귀분석에 학교 고정효과를 투입한 FE모형을 최종적으로 <표 6>에 제시하였다. 진로 교과 수업, 진로 심리검사, 진로 상담, 진로 동아리, 진로 체험활동 이렇게 5가지 진로교육 유형별로 상호작용항을 살펴보고 모형 (3)에서 ‘진로와 직업’ 수업 경험 여부와 부모 학력의 상호작용항은 계수 값이 -0.028로 부적으로 나타났으며 0.05 수준에서 유의하였다. 즉, 진로 교과 수업에 참여한 적 있는 학생들에게서 수업 미참여 학생과 비교하여 부모 학력의 영향력이 더 적어지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외의 학교 진로교육 활동으로 진로 심리검사, 진로 상담, 진로 동아리, 진로 체험활동에 대해서는 조절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표 6〉 부모 학력이 진로개발역량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학교 진로교육 경험의 조절효과

	(3)	(4)	(5)	(6)	(7)
진로 교과 수업*부모 학력	-0.028** (0.013)				
진로 심리검사*부모 학력		0.000 (0.007)			
진로 상담*부모 학력			-0.005 (0.005)		
진로 동아리*부모 학력				0.005 (0.005)	
진로 체험활동*부모 학력					-0.006 (0.008)
School-fixed effect	yes	yes	yes	yes	yes
cons	0.124 (0.221)	0.500*** (0.164)	0.446*** (0.148)	0.518*** (0.142)	0.419** (0.167)
R2	0.472	0.472	0.472	0.472	0.472
N	5,074	5,074	5,074	5,074	5,074

- Standard errors are in parentheses. *** p<0.01, ** p<0.05, * p<0.1
 - 통제변수는 〈표 5〉와 같이 투입함



〔그림 2〕 [진로 교과 수업 경험에 따른 부모 학력과 학생 진로개발역량 간 관계]

앞서 상호작용항이 유의하게 나온 모형 (3)의 분석 결과를 구체적으로 확인하고자 진로 교과 수업 경험 여부에 따라 부모 학력 연한과 진로개발역량 간 추정 회귀선(fitted line)을 도출하였다. [그림 2]를 보면 진로 교과 수업 경험 집단의 기울기가 수업 미경험 집단의 기울기보다 완만하다. 수업 경험 집단의 기울기는 진로 수업 경험 여부에 따라 집단 구분을 하지 않은 평균적 회귀선의 기울기보다도 더 완만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나. 학교 진로교육 만족도의 조절효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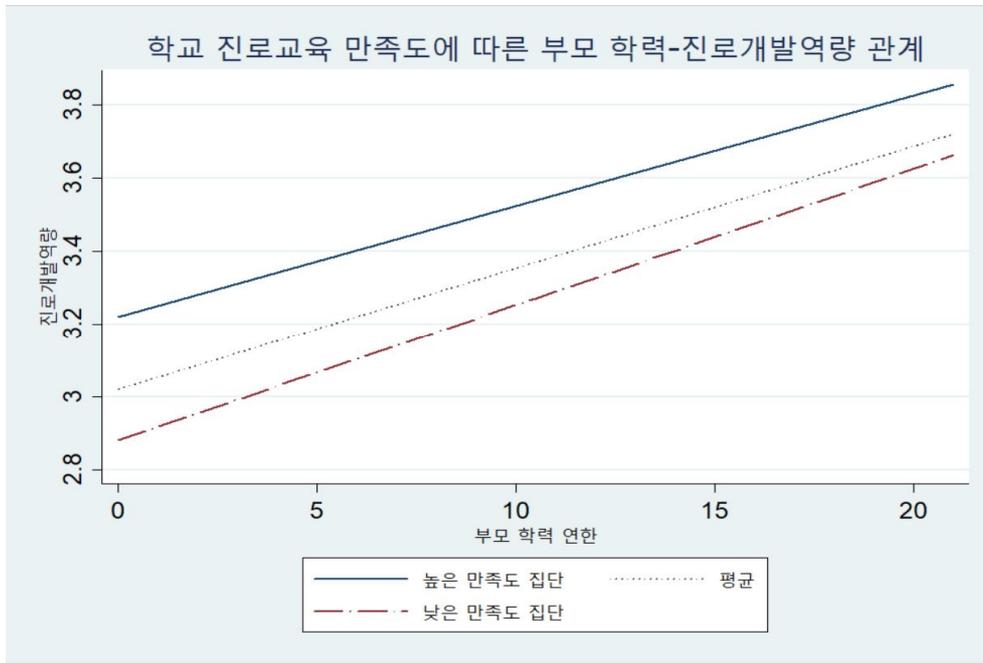
다음으로, 부모 학력이 고등학생의 진로개발역량에 미치는 영향이 학생의 학교 진로교육 만족도에 따라 달라지는지 살펴보았다. 아래 <표 7>에서 OLS분석 결과인 모형 (8)에서 학교 진로교육 만족도와 부모 학력의 상호작용항의 계수는 -0.005이었고, 0.1 수준에서 유의하였다. 학교 고정효과를 적용한 (9)에서는 계수 값이 -0.006로 유의수준 0.05에서 유의하였다. 즉, 학생이 학교 진로교육에 만족할 때 부모 학력이 고등학생의 진로개발역량에 미치는 영향력이 더 작았다.

학교 진로교육 만족도와 부모 학력 간 조절효과 분석 결과는 다음 [그림 3]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학교 진로교육 만족도는 중위값(median)인 3점을 기준으로 4, 5점은 고집단, 3점 이하의 저집단으로 구분하였다. 먼저, 학교 진로교육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집단에서 진로개발역량도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또한 만족도 고집단의 회귀선, 평균 회귀선과 비교해서 만족도 저집단 학생들에게서 회귀선의 기울기가 더 가파른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학교 진로교육에 만족감을 느끼고 있는 학생들에게서는 학생의 진로개발역량에 대한 부모 학력의 영향력이 작은 것으로 볼 수 있다.

<표 7> 부모 학력이 진로개발역량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학교 진로교육 만족도의 조절효과

		(8)		(9)	
		β	SE	β	SE
학교 진로교육 만족도*부모 학력		-0.005*	0.003	-0.006**	0.003
학교 진로교육 만족도		0.099**	0.463	0.111**	0.046
SES	부모 학력 연한	0.030***	0.010	0.031***	0.010
	가구소득	0.003	0.012	-0.007	0.012
school-fixed effect		-		yes	
cons		0.236	0.173	0.204	0.202
R2		0.435		0.472	
N		5,074		5,074	

- 통제변수는 <표 5>와 같이 투입하였음
 - Standard errors are in parentheses, *** p<0.01, ** p<0.05, * p<0.1



[그림 3] 학교 진로교육 만족도에 따른 부모 학력과 학생 진로개발역량 간 관계

V. 결론

급변하는 사회에서 청소년의 진로 선택, 직업 획득과 적응, 일생 전반의 진로 개척을 위하여 진로개발역량이 요구되고 있으며 이에 모든 학생이 진로를 스스로 계획하고 준비해나갈 역량을 기를 수 있도록 하는 학교 진로교육이 강화되고 있다(교육부, 2020.2.). 이러한 가운데 본 연구는 모든 학생의 진로개발역량을 성취를 목표로 하는 학교 진로교육의 역할에 주목하였다. 이에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고등학생의 진로개발역량에 미치는 영향이 학교 진로교육 경험과 만족도에 따라 차별적으로 나타나는지 검증하고자 하였다. 한국교육고용패널Ⅱ(KEEPⅡ)의 2016년도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최소자승회귀모형에 학교고정효과(school fixed effect)를 적용하여 분석하였다.

연구의 결과로 먼저, 기술통계 분석에서 고등학생의 학교 진로교육 참여 현황으로 진로 교과 수업(94.5%)을 경험한 비율이 가장 높았고 이어서 진로 체험활동(87.0%), 진로 심리검사(82.0%), 진로 상담(63.4%), 진로 동아리(33.4%)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가구소득이 낮은 고등학생보다 높은 학생들에게서 진로개발역량의 평균이 높았고, 부모 학력 역시 고학력 부모를 둔 학생의 진로개발역량 평균값이 더 높아 가구소득과 부모 학력에 따라 고등학생 자녀의 진로개발역량에서 차이가 나타났다.

다음으로,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 중 부모 학력 연한이 고등학생의 진로개발역량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 정적으로 유의하였으며, 가구소득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이는 부모 학력과 가구소득 모두가 정적인 유의성을 나타냈다고 보고한 노혁(2006)과 이은정, 장윤옥(2008)의 연구와 일부만 일치하는 결과한다. 이러한 결과가 나타난 이유는 노혁(2006)의 연구에 비추어 학년별로 진로성숙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이 다른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분석 대상인 2016년 일반계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에게는 부모의 학력이 유의하게 작용한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또한 기술통계 분석 결과 가구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학생의 진로개발역량이 높아지는 경향을 보여주고 있어 소득수준이 높은 가정의 고등학생 진로성숙도가 더 높은 경향을 보였다는 연구 결과(김재희, 2019a; 원지영, 2019; 진성미, 2011)와 맥을 같이 한다.

끝으로, 학교 진로교육 경험 및 만족도와와의 상호작용 분석에서 학생의 진로 교과 수업 경험은 부모 학력의 영향을 부적으로 조절하였다. 또한, 학교 진로교육 만족도가 높은 학생들에게서 부모 학력의 영향이 줄어들었다. 이는 학교 진로교육의 효과가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낮은 학생들에게 더 크게 작용할 수 있으며(박경호, 2018), 가정 배경의 영향력으로 인한 차이를 보완할 수 있다는 선행연구(Greenwald, Hedges & Laine, 1996)와 맥락을 같이 한다.

이와 같은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진로교육의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정책을 제안한다. 첫째, 모든 학생에게 진로 교과 수업의 기회를 보장하되, 수업의 질 제고를 위한 지원도 병행되어야 한다. 2019년 학교 진로교육 현황에 따르면 ‘「진로와 직업」 교과 수업’, ‘교과 수업 중 진로탐색활동’은 84% 이상의 고등학생이 참여하여 참여율이 가장 높은 활동이었다. 그러나 학생들의 활동 만족도와 향후 재참여 의향은 다른 활동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었다(한상근, 김민경, 안유진, 안중석, 김다래, 2019). 이는 앞선 분석 결과에서 진로 교과 수업과 학생의 진로개발역량 간 정적 회귀계수가 유의하지 않았다는 점과 함께 고려해보면 현재 학교 진로 교과 수업의 효과성에 관하여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진로 교과 수업의 효과가 부모의 교육 수준이 낮은 학생들에게 더 크게 나타날 수 있다 하더라도 수업의 질이 보장되어야 격차를 해소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진로 교과 수업을 확대 시행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학생이 자신의 진로에 관하여 능동적으로 사고하고 경험할 수 있도록 교육 내용과 방법의 내실화가 중요하겠다(교육부, 2020.2.).

둘째, 학교에서의 교과 수업 외 진로 상담, 진로 체험, 진로 동아리 등 진로교육 활동 또한 학생이 만족할 수 있는 방향으로 운영될 때 가정 배경으로 인한 격차를 좁히는 데 기여할 수 있다. 최근 연구들은 진로교육 활동 경험 자체보다 학생이 만족할 때 그 경험이 유의미하다는 결과를 도출한 바 있다(장현진, 2018). 또한 본 연구의 결과도 학교 진로교육에 만족감을 느끼는 고등학생들에게서는 부모 학력이 진로개발역량에 미치는 영향이 줄어들었다. 이를 고려했을 때 학교 진로교육은 대규모, 일방향의 교육보다는 학생 간 서로 다른 진학 및 취업 희망과 필요한 정보(needs)의 차이를 반영하여 맞춤형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셋째, 학교의 진로교육은 소외계층 학생의 진로개발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교육격차를 줄이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현재 읍면·도서 지역 및 사회적 취약 계층 학생의 진로 체험 기회 확보를 위하여 원격영상 진로멘토링, 진로 체험버스, 대학 진로탐색캠프 사업이 운영되고

있으며, 각 프로그램은 중소도시 학생, 다문화 학생, 학교 밖 청소년 등 참여대상을 확대해왔다(관계부처합동, 2018). 이처럼 학교 밖 기관과 연계하는 진로 체험 뿐 아니라 학교 내에서의 진로교육 수업과 상담 역시 가정에서의 진로 지도가 부족하고 진로개발역량이 낮은 학생들의 어려움에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또한, 학생의 적성·진로에 대한 교사의 관심이 고등학생의 진로개발역량에 정적인 상관이 보고되는바, 학교에서 진로전담교사, 담임교사의 정보 제공 및 정서적 지원이 더욱 필요한 학생들에게 차별적으로 이루어질 때 가정 배경에 따른 진로개발역량 격차를 좁힐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부모의 학력에 따라 학교 진로교육의 성과인 고등학생의 진로개발역량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남을 실증적으로 밝혔다. 또한, 학교 진로교육 중 진로 교과 수업 경험과 학교 진로교육 만족도가 부모 사회경제적 지위의 영향을 조절할 수 있음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한계가 있으므로 후속 연구를 통한 보완이 필요하다.

첫째, 본 연구는 종단 연구가 아니며 한 시점의 자료로 회귀분석을 진행하였고 학생의 진로교육 경험 및 만족도와 진로개발역량의 발생 시점과 순서를 보장하기 어렵다. 따라서 학교 진로교육으로 학생의 진로개발역량 격차를 줄였다는 엄밀한 인과적 해석이 불가함을 밝힌다. 다만 고등학생의 학교 진로교육 경험 및 만족도에 따라 진로개발역량에 대한 부모 학력의 설명력이 유의하게 다르다는 점에서 진로개발 격차와 학교 진로교육의 상관성에 주목해 관련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또한, 본 연구의 결과로는 학교 진로교육의 과정(process)을 충분히 논하기 어렵다. 특히, 연구에서의 ‘학교 진로교육 경험’은 분석 자료에서 구분하여 제공한 일반적인 범주이다. 동일 유형의 진로교육에 대해서 학생들 간 경험의 질적 차이가 나타날 수 있는데 연구진은 이를 통제된 분석을 시도했을 뿐 그 자체를 들여다볼 수는 없었다. 따라서 학교 진로교육이 어떻게 진행되었을 때 소외계층 학생들에게 유익하며, 가정 배경의 영향을 줄이게 되는지 특성과 조건, 맥락을 파악하려는 시도가 필요하다. 이는 학교 진로교육을 경험한 학생, 교사를 대상으로 면담 연구와 같이 질(質)적인 접근을 통해 가능할 것이다.

끝으로, 학교 진로교육이 확대되면서 학생 간 진로교육 투입 및 결과의 격차를 줄이기 위하여 다양한 정책적 노력이 있다. 지역 간 진로 체험 격차 해소를 위한 진로 체험 프로그램과 소외계층 및 진로취약계층을 위한 추가적 지원을 예로 들 수 있다(관계부처합동, 2018). 본 연구에서는 일반적인 공교육의 역할 또는 학교 효과로써 학교 진로교육 경험과 만족도가 진로 격차 해소에 기여할 가능성을 탐색하였으나 이는 진로교육격차 해소를 목적으로 하는 정책이라고는 할 수 없다. 추후 학교 진로교육의 안정적 운영과 발전을 위해서는 지역 간, 계층 간 교육과정과 결과의 형평성을 면밀히 진단하는 동시에 격차 해소를 위해 시행된 정책의 효과성에 관하여 실증적 검증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 참고문헌 ❖

- 관계부처합동(2018). 진로교육 활성화 방안.
- 교육부(2012.1.). 2012년 진로교육 활성화 추진계획(안).
- 교육부(2015). 2015 학교 진로교육 목표와 성취기준.
- 교육부(2016.4.5.). 제2차 진로교육 5개년 기본계획 (2016~2020).
- 교육부(2020.2.). 2020 학교 진로교육 지원계획.
- 김규효, 이은경(2019). 고등학교 재학 시 진로교육경험이 대학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진로성숙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동서정신과학, 22(1), 97-110.
- 김동심, 윤혜준(2020). 고등학생의 진로성숙도와 행복에 미치는 영향변인 분석 및 학교유형에 따른 차이분석. 중등교육연구, 68(2), 333-359.
- 김봉환, 정철영, 김병석(2006). 학교진로 상담. 서울: 학지사.
- 김성민, 황진태(2011). 학생의 사회경제적 배경에 따른 학업성취도 차이에 교사가 미치는 영향. 교육재정경제연구, 20(4), 77-98.
- 김성숙, 송미영, 김준엽, 이현숙(2011).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의 지역간 학력 차이에 따른 초, 중, 고 학교특성 분석. 교육평가연구, 24, 51-72.
- 김소라, 문승태(2017). 고등학생 진로개발역량에 있어서의 부모의 역할. 진로교육연구, 30(4), 27-48.
- 김수정, 차영화, 최셋별(2020). 불평등한 미래: 청소년의 ‘꿈’, 지위표식이 되다. 한국사회학, 54(1), 101-138.
- 김순미, 이성하, 조설희, 김민순(2020). 고등학생의 진로태도성숙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요인 간의 구조적 관계 - 경북지역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지역산업연구, 43(1), 89-111.
- 김장희, 정성수(2012). 공업계열 특성화고교생의 직업흥미-전공 일치도, 직업흥미-포부 일치도, 진로성숙도 및 학업성취도의 관계, 한국교원교육연구, 29(3), 1-18
- 김재희(2019a). 일반계 고등학생의 진로교육활동 참여 및 만족도가 진로성숙도에 미치는 영향: 소득계층별 비교를 중심으로. 직업능력개발연구, 22(1), 75-109.
- 김재희(2019b). 다문화가정 고등학생의 학교 진로교육활동이 진로개발역량에 미치는 영향과 자기 효능감의 매개효과. 다문화교육연구, 12(1), 111-146.
- 김희자(2008). 청소년 빈곤과 진로성숙도, 교육포부, 보건과 복지, 10, 87-106.
- 남수정(2011). 고교생의 진로교육의 현황 및 진로역량과 관계 연구. 청소년학연구, 18(11), 283-304.
- 노혁(2006). 가정의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른 청소년의 진로성숙수준 연구. 청소년학연구, 13(6), 306-328.
- 라종민, 이기종(2016). 특성화 고등학교 졸업생들의 진로성숙도를 매개로 한 직무만족도에 대한 가정 내 진로교육 효과. 직업능력개발연구, 19(1), 49-73.
- 박주호, 백종면(2019). 교육격차 실증연구의 체계적 분석. 한국교육문제연구, 37(1), 213-238.
- 박창남, 도종수(2005).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학업성취에 미치는 영향. 사회복지정책, 22, 281-303.
- 박현정, 길혜지(2013). EBS 수능강의 수강이 교육격차 감소와 학교수업태도 향상에 미치는 효과

- 분석. 교육평가연구, 26, 1115-1141.
- 박희진, 남궁지영(2019). 학업성취 변동 중단 분석: 교육격차 완화 요인 탐색을 중심으로. 교육사회학연구, 29, 65-88.
- 백선희, 심우정(2018). 고등학교 학생들의 진로 활동 경험: 학교의 공급과 학생의 경험. 한국교육, 45(4), 1-30.
- 심우정, 백선희(2020). 중학생의 동아리 활동 참여 수준 및 참여 동아리 유형 관련 요인. 아시아교육연구, 21(2), 433-462.
- 여유진, 정해식, 김미곤, 김문길, 강지원, 우선희, 김성아(2015). 사회통합 실태 진단 및 대응 방안 II.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원지영(2019). 가구소득과 진로지도 및 상담 경험이 청소년의 진로성숙에 미치는 영향.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9(2), 638-649.
- 이경희, 민인식(2016). 직업 및 소득 계층의 세대 간 이전에 관한 연구. 한국노동연구원.
- 이영광, 김민수, 김민주(2014). 청소년의 진로성숙을 변화·포기하게 만드는 원인은 무엇인가?: 질적연구를 통한 빈곤청소년과 비빈곤 청소년 비교. 한국사회과학연구, 33(2), 157-179.
- 이은아(2015). 인성교육의 대안과 방향: '경제적 인간'에서 '호혜적 인간'으로. 사회과학연구, 26(4), 235-255.
- 이은정, 장윤옥(2008). 개인 가족 학교관련 변인이 중학생의 진로태도성숙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6(5), 355-376.
- 이인수(2017). 일반고 진로진학정책 집행 과정의 패러독스 현상에 대한 질적 연구. 교육행정학연구, 35, 51-84.
- 이종훈, 김성환(2018). 전공만족도가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을 매개로 대학생의 취업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 평생교육·HRD 연구, 14(2), 77-96.
- 이지연(2014). 단위학교 학생 개인 맞춤형 진로서비스를 위한 체제적 접근. 한국진로교육학회 학술대회지, 44-74.
- 임언(2008). 역량중심 교과통합 진로교육을 위한 탐색. 서울: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임언, 정윤경, 최동선, 김나라, 장명희, 정연순, 장석민(2008). 교육과정과 연계된 진로교육 운영 모델 구축(총괄보고서).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서울: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임지윤(2018). 고등학생의 진로성숙도 관련변인 간의 구조적 관계 분석. 창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장현진, 김민경, 류지영, 윤수린, 유미애(2015). 학교 진로교육 실태조사(2015). 세종: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장현진(2018). 학교 진로교육 활동 참여와 만족도가 중학생의 진로개발역량, 학습동기 및 자기주도학습에 미치는 영향. 진로교육연구, 31(1), 21-42.
- 장현진(2019). 일반계 고등학생의 진로성숙도에 대한 개인, 가정, 학교 및 진로활동 경험의 영향. 진로교육연구, 32(3), 43-64.
- 정은이(2016). 대학생의 자기 주도성과 대학 적응의 관계에서 다양성 수용도 및 진로 역량의 매개 효과. 교육방법연구, 28(4), 651-679.
- 정하은(2019). 저소득층 후기 청소년 진로설계 경험. 인문사회 21, 10(6), 453-468.
- 조명희, 이해연, 이현우(2013). 고교생의 진로발달, 학교생활만족도, 학업성취도의 중단적 변화와 구조적 관계. 진로교육연구, 26(2), 91-112.



- 진성미(2011). 서울시 초·중·고교생의 진로성숙도 관련변인별 집단 비교. 한국교육문제연구, 29(2), 133-156.
- 최수정(2007). 중등단계 청소년의 자기효능감, 사회경제적 수준 및 학업성적과 진로성숙변화의 관계에 대한 구조방정식 변화모형. 한국청소년연구, 18(3), 31-57.
- 한상근, 김민경, 안유진, 안중석, 김다래(2019). 초·중등 진로교육 현황조사(2019). 세종: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황매향, 임은미(2004). 중고등학생들의 학업동기와 진로성숙도의 관계. 교육심리연구, 18(3), 177-191.
- 황진구, 허효주(2014).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V: 기초분석보고서Ⅲ - 청소년 체험활동 및 문화활동 참여 실태와 추이 분석.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1-143.
- Creed, P. A., & Patton, W. (2003). Predicting two components of career maturity in school based adolescents. *Journal of Career Development*, 29(4), 277-290.
- Crook, R. H., Healy, C. C., & O'Shea, D. W. (1984). The linkage of work achievement to self-esteem, career maturity, and college achievement.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25(1), 70-79.
- Dufur, M. J., Parcel, T. L., & Troutman, K. P. (2013). Does capital at home matter more than capital at school? Social capital effects on academic achievement. *Research in Social Stratification and Mobility*, 31, 1-21.
- Greenwald, R., Hedges, L. V., & Laine, R. D. (1996). The effect of school resources on student achievement. *Review of educational research*, 66(3), 361-396.
- Hackett, G., & Betz, N. E. (1981). A self-efficacy approach to the career development of women.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18(3), 326 - 339.
- Hopson, L. M., & Lee, E. (2011). Mitigating the effect of family poverty on academic and behavioral outcomes: The role of school climate in middle and high school. *Children and Youth Services Review*, 33(11), 2221-2229.
- Jay, W., Rajewski, R. C. W., & John, W. S. (1995). Effects of gender and academic-risk behavior on the career maturity of rural youth. *Journal of Research in Rural Education*, 11(2), 92-104.
- Lee, I. H. (2018). The link between socioeconomic status and career adaptability among Korean adolescents: The mediating role of parental career-related support. *Career and Technical Education Research*, 43(1), 57-75.
- Lee, S. A., Lee, H. S., Song, H. S., & Kim, S. G. (2015). The relationship between attachment and career maturity: The mediating role of self-efficacy. *International Social Work*, 58(1), 153-164.
- Liu, Y., Peng, K., & Wong, C. S. (2014). Career maturity and job attainment: The moderating roles of emotional intelligence and social vocational interest. *International Journal for Educational and Vocational Guidance*, 14(3), 293-307.
- Luzzo, D. A. (1993). Value of career-decision-making self-efficacy in predicting career-decision-making attitudes and skills.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40(2), 194-199.
- Musset, P. (2012). School Choice and Equity: Current Policies in OECD Countries and a Literature Review, OECD Education Working Papers, 66, OECD Publishing.
- O'Malley, M., Voight, A., Renshaw, T. L., & Eklund, K. (2015). School climate, family structure, and

- academic achievement: A study of moderation effects. *School Psychology Quarterly*, 30(1), 142.
- Parcel, T. L., & Dufur, M. J. (2001). Capital at home and at school: Effects on student achievement. *Social forces*, 79(3), 881-911.
- Park, J. H., Rojewski, J. W., & Lee, I. H. (2018). Determinants of adolescents' career development competencies in junior secondary schools of South Korea. *International Journal for Educational and Vocational Guidance*, 18(1), 1-25.
- Perry, S. R., Cabrera, A. F., & Vogt, W. P. (1999). Career maturity and college student persistence. *Journal of College Student Retention: Research, Theory & Practice*, 1(1), 41-58.
- Savickas, M. L. (1984). Career maturity: The construct and its measurement. *Vocational Guidance Quarterly*, 32(4), 222 - 231.
- Super, D. E. (1953). A theory of vocational development. *American psychologist*, 8(5), 185.
- The National Career Development Association. (2004). National Career Development Guidelines Overview.
- Retrieved from
<https://www.careeronestop.org/competencymodel/modelfiles/natl.careerdev.guidelines.pdf>.

❖ Abstract ❖

Equity in Career Development of Students in South Korea : The role of career education in school

Youngsun Lee, Gayeong Lee, Junghyun Kim, Minwook Lee (KRIVET)

This study focused on high school students' disparities by the socio-economic gaps in terms of career development competencies, and examined that career education in high school could diminish the disparities by family background. We used the ordinary least square model with the application of a school-fixed effect using the representative data from the Korean Education and Employment Panel (KEEP). It was found that parents' educational level was positively linked to high school students' career development competencies, while family income was not shown as statistically significant. Then, we found that the impact of parents' educational level on career development competencies was lessened for students who have taken CTE classes in schools. In addition, for students who are satisfied with the school career education the effect of parents' educational level was diminished. Based on these findings, we discussed the role of career education narrowing the gap in students' career development by the parental backgrounds.

Keywords: career education, career development competencies, education equity